전쟁기계와 속도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가?

1968년 5월 15일, 5일 전의 '바리케이드의 밤' 때 경찰이 강행한 폭력적 진압에 항의하려고 국립미술학교, 뤽상부르 공원, 퐁네프 다리를 거쳐 파리의 사방천지에서 2만5천여 명의 학생, 예술가, 지식인이 오데옹 국립극장을 점거하려 모여들고 있었다. 같은 시간, 소르본 대학에서는 일군의 학생들이 리슐리외 강당을 가득 매운 채 사전 집회를 열고 있었다. 강단에는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적당히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체구를 지닌 중년 남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어느 학생이 연사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소르본 대학의 담벼락에 씌어 있는 낙서를 보셨습니까?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로'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은 상상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게 가야죠."

"그렇군요, 동지. 그런데 동지는 노동자 계급에게도 상상력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겁니까?"

연사의 이런 재치 있는 반문에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지 야유가 터져 나왔는지는 그 문제의 '현장'에 없었던 관계로 잘 모르겠으나, 그 뒤로 30여 년 동안 20여 권의 저서를 쏟아내며 당시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성찰하는 데 전념했던 이 반문의 당사자는 자신의 재치에 적잖이 만족했던 듯싶다. 훗날 그 문제의 당사자 비릴리오는 자신이 건축 이론가에서 정치 이론가로 변모하게 된 이 순간을 "나는 오데옹 극장을 점거하면서 역사로 들어갔다"라는 말로 즐겁게 회고한 바 있으니 말이다.

독자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속도와 정치』(1977)는 이처럼 흥미로운 일화와 더불어 역사로 들어가게 된 비릴리오가 선보인 '사실상'의 데뷔작이다. 무릇 독창적인 이론가들의 데뷔작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책도 처음 선보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 책 이전에 발표됐던 두 권의 저서 『벙커의 고고학』(1975)과 『영토의 불안전성』(1976)에서도 그 싹을 보이긴 했지만, 이 책은 새로운 개념들의 향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비릴리오 자신의 독특한 개념들로 가득 찬 책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책의 개념들 중 초창기의 독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개념은 비릴리오가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규정한 개념인 (그리고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드로몰로지'dromologie일 것이다.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큰 지식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영미권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밉살스러울 정도로 정확한 서평을 자랑하는 『르몽드』조차도 이 개념을 '속도학'('속도철학')으로 잘못 옮겼을 정도이다. 비릴리오도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드로몰로지의 접두어인 그리스

어 '드로모스'dromos/δρομος는 속도라는 뜻이 아니라 "경주(장), 달리는 행위, 민첩한 움직임"이라는 뜻이다(속도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타코스'tachos/ταχος이다). 그러므로 드로몰로지는 '속도의 논리'라기보다는 '경주의 논리'를 뜻한다.[1)]

물론 비릴리오가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은유를 많이 쓰고 있으니 속도학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정작 그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 그 자체라기보다는 속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종의 투기, 그로 인한 역사의 '가속도'(가속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속도라는 표현은 경쟁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는 바, 그러니까 역사를 결투·투쟁·전쟁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비릴리오의 지독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2)]

『속도와 정치』 대 『천 개의 고원』

그렇다면 '경주의 논리'라는 드로몰로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이 개

---

1) Paul Virilio and Sylvère Lotringer, *Pure War*, trans. Mark Polizzoti, New York: Semiotext(e), 1997, p.47.

2) 속도를 뜻하는 프랑스어 '비테스'(vitesse)나 독일어 '게슈빈디그카이트'(gesch-
windigkeit)는 영어 '스피드'(speed)보다 '드로모스'의 어원에 훨씬 더 가깝다. 나는 '속도'와 '경주'라는 뜻을 느슨하게라도 모두 함축해 보려는 의도로 '질주'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 이 표현이 원래 뉘앙스를 잘 살렸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 듯싶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발음 그대로 표기했다.

념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주의 논리로 탈영토화된 세계에서 저항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나는 지금부터 이런 궁금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들뢰즈·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특히 제9, 12, 13장)과 비릴리오의 저서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 『천 개의 고원』은 비릴리오를 다룬 2차 문헌들 가운데 국내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들뢰즈·가타리가 비릴리오의 작업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인용하고 있는(즉, 문제의식이 상당히 비슷한) 저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비릴리오의 논의만 정리하는 것보다 비릴리오의 문제의식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먼저 이들의 차이점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 곳곳에서(가장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대략 15군데 정도이다) 비릴리오의 논의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반론을 펼친다. 다소 길긴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인용해 보자.

> 비릴리오의 텍스트는 아주 중요하며 참으로 독창적이다. 우리에게 곤란을 안겨주는 유일한 점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세 부류의 속도를 그가 동질화한다는 점뿐이다. (1) 유목적, 또는 혁명적 경향의 속도(폭동, 게릴라전), (2) 국가장치에 의해 규제, 변환, 전유되는 속도(공공도로의 관리), (3) 전 세계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조직, 또는 (현존함대에서 핵 전략[핵 억지력]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과잉무장에 의해 복권된 속도. 비릴리오

는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세 부류의 속도를 동일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속도는 '파시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위의 구별을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그의 분석이다.[3]

들뢰즈·가타리의 지적은 정확하다. 확실히 비릴리오는 그들이 밝힌 세 부류의 속도를 모두 언급하지만, 굳이 그 속도들의 차이점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비릴리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들뢰즈·가타리의 지적처럼 이 세 부류의 속도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도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릴리오가 보는 현대 사회는 역사(혹은 일상의 속도)의 가속화와 공간의 축소화로 인해서 '극의 관성'Inertie polaire이 이뤄진 사회이다. 비릴리오의 주장에 따르면 극의 관성이란 극한에 다다른 속도 속에서 이뤄지는 정주, 혹은 지리적 공간의 현존이 '임계점'에 들어선 상황(지리적 공간의 소멸)을 말한다. 비릴리오가 즐겨 쓰는 비유를 빌려 말해보자면 떠나기도 전에 도착해 있는 여행객,[4] 고속 열차를 타고 여행하기에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승객, 한군데 앉아서도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을 넘나들 수 있는 투자자,[5]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야 영토를 점령할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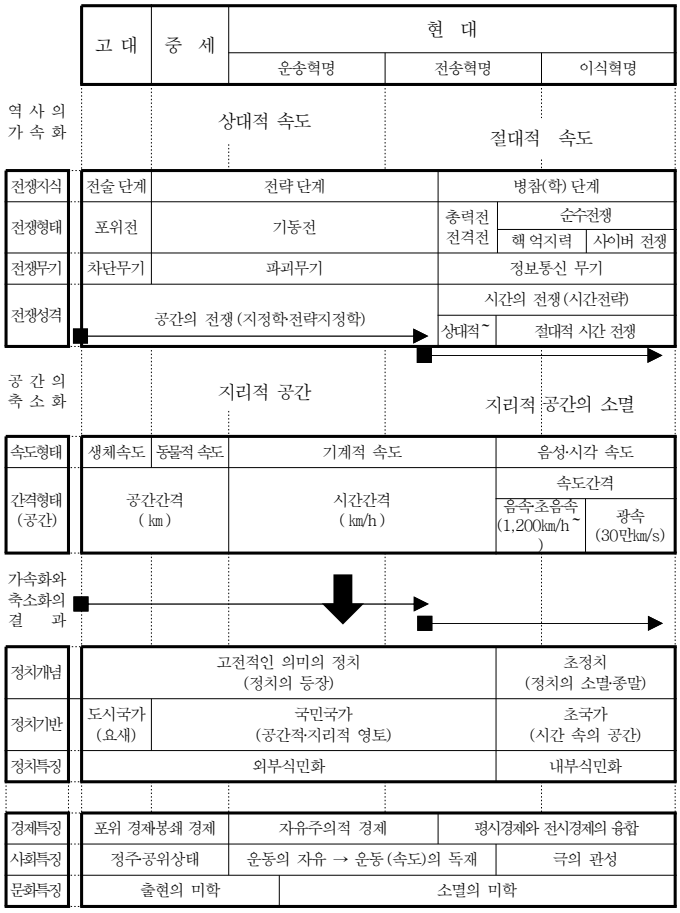
3)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745쪽. 이하 모든 인용문은 옮긴이가 문맥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했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강조 표시(고딕체)도 옮긴이가 한 것이다. 이 책 『속도와 정치』에서 인용한 구절은 괄호 안에 쪽수만 병기했다.

4)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72.

있게 된 군인의 상황[6]인 것이다. 따라서 극의 관성은 뭔가를 하기

<도표 1> 드로몰로지로 본 비릴리오의 세계

5)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71.



* WW1, WW2 → 제1차·제2차 세계대전

위해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자 운동 자체를 박탈당한 상황(운동의 독재)이다. 그리고 이렇듯 운동의 독재에 근거한 것이기에 사람이나 사물의 부동성에 근거한 고전적인 의미의 관성과는 그 성격도 전혀 다르다.[7] 다시 말해서, 극의 관성은 동물적 신체(인간)를 단지 넘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고갈과 죽음(하워드 휴스의 사례를 참조하라), 그도 아니면 마비 상태에 빠뜨린다.[8]

그렇다면 우리는 들뢰즈가타리가 비릴리오의 이런 논의를 짐짓 모른 체 했다고, 그도 아니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극의 관성』은 『천 개의 고원』이 나온 뒤 10년이 지나서야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할 듯싶다. 왜냐하면 비릴리오는 이미 『영토의 불안정성』(1976), 『속도와 정치』, 『인민 방어와 생태 투쟁』(1978)에서 그 표현은 다를지언정 극의 관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 현대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극의 관성을 가져온 역사의 가속화와 공간의 축소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비릴리오의 설명에 따르면, 운송혁명과 더불어 만개하기 시작한 과학기술(특히 기계적 운송장치) 자체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이런 상황이 비롯된 것인데,

---

6) John Armitage (ed.), *Virilio Live: Selected Interviews*, London: Sage, 2001, p.192.

7)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68.

8)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p.74, 77; Armitage (ed.), *Virilio Live*, p.155.

우리는 군사 분야에서 이 점을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다. 비릴리오가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시점은 최초의 '총력전'이 전개된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핵 억지력'을 등장시킨 제2차 세계대전이다. 먼저 총력전은 완전한 의미의 '총동원령'이다. 비릴리오에 따르면 이 현상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은 총력전에 부응하는 전쟁 지식, 즉 '병참학'이라는 개념인데, 그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1945년경 발표된 미 국방부 성명서를 즐겨 인용한다. "병참학은 전시에나 평시에나 상관없이 국가의 모든 능력이 군대로 이전되는 과정이다."[9] 비릴리오는 전쟁 뒤에도 총력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병참학 개념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전시(경제)와 평시(경제)의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런 총력전을 가능케 한 것이 기계적 운송장치의 발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기계적 운송장치의 발전에 조응하는 전쟁 무기체계의 변화, 즉 고대의 차단 무기(해자, 성벽, 요새, 보루, 갑옷)에서 중세의 파괴 무기(창, 화살, 대포, 기관총, 미사일)로, 결국에는 정보통신 무기(망루, 신호정보, 전산·전화, 레이더, 인공위성)로 발전해 나아간 무기 체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만개하기 시작한 기계적 운송장치가 경제 분야에서는 대량생산·대량 소비를 가능케 했다면(따라서 병참학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면), 군사 분야에서는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습격 수단과 연락망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이다.

---

9)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24.

갈수록 가속화된 과학기술의 속도는 기계적 운송장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 무기의 속도도 가속화했다. 바야흐로 핵무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릴리오의 논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세계 전쟁이 핵무기를 통해서 핵 억지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 억지력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비릴리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 [핵 억지력은] 무장을 통해 이뤄지는 보호를 무기 자체가 대체하게 된 상황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 고대의 무기를 투척하든 신형 무기를 발사하든지 간에, 이런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은 결코 적을 죽인다거나 적의 재산을 파괴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을 단념케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적의 움직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10]

비릴리오의 또 다른 설명. "우리는 서로를 겨냥해 수행되는 전쟁을 그만뒀다. …… 그렇지만 우리는 군비 경쟁, 우주 경쟁, 정보의 발전(인공위성, 즉각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더 위협하고 있다."[11] 즉, 핵 억지력은 개인이나 사회, 혹은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 자체의 종말을 야기할 수도 있는 핵무기

---

10) 폴 비릴리오, 이재원 옮김,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238, 250쪽.

11) Paul Virilio and Philippe Petit, *Politics of the Very Worst*, New York: Semio-
text(e), 1999, p.34.

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12]이지만, 전쟁 자체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한 포염 없는 전쟁의 지속인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순수 전쟁'Guerre pure(아니면 '순수 권력'Pouvoir pure)의 도래를 목도하게 된 것이다.

순수 전쟁이란 손자의 군사적 이상, 즉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 不戰而屈人之兵의 도착적 형태이다.[13] 따라서 "순수 전쟁이란 [단순한] 평화나 전쟁이 아니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절대적' 전쟁이거나 '총력전'인 것도 아니다."[14] 오히려 그것은 실제의 전쟁이 아니라 "과학 속에서 작동하는 영구 전쟁"이거나 "병참학적 전쟁"[15]이며, 그도 아니면 '총력적 평화'[16]이다. 전쟁은 전쟁이지만 포염 없는 전쟁, 평화는 평화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화염으로 뒤덮인 평화!

간단히 정리하자면 병참학, 핵 억지력, 순수 전쟁은 훗날 비릴리오가 극의 관성이라고 부를 상황을 다른 식으로 포착한 개념이다. 이 점은 비릴리오가 순수 전쟁을 '문화적 자살'이라고 부른다거나, 순수 전쟁의 목적은 또 다른 형태의 의지 없는 신체를 창출하는 것("무의식이야말로 순수 전쟁의 목적이다")이라고 말한 데에서 분명해진다.[17]

그러므로 우리는 비릴리오가 병참학, 핵 억지력, 순수 전쟁 등

---

12)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130.
13) 손자, 김광수 옮김, 『손자병법』, 책세상, 1999, 89쪽.
14) Paul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trans. Mark Polizzoti, New York: Semiotext(e), 1990, p.35.
15)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119.
16) 비릴리오, 『속도와 정치』, 246쪽.
17)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p.60, 122.

을 강조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이유에 공감했던[18] 들뢰즈가타리가 그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견을 보였다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호주의 문화연구자 크로건도 순수 전쟁이라는 상황이 도래했기에 비릴리오는 들뢰즈가타리처럼 세 부류의 속도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옳게 지적했지만, 그는 이들이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이유를 나와는 다른 점에서 찾았다. 크로건의 말을 빌리자면, 들뢰즈가타리는 자신들이 (비릴리오와 달리) 현대 과학기술의 창조적 궤적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좀더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들이 국가('원국가'Urstaat) 대 전쟁기계라는 정적이고 초역사적인 도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빚어졌다는 것이다.[19]

그렇지만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모든 소수적 정치 이론의 궁극적인 관심사, 즉 "어떻게 저항을 사유할 것인가?"를 둘러싼 서로의 관점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듯하다. 이 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들뢰즈가타리와 비릴리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욱 더 명확해진다.

우선 비릴리오는 들뢰즈가타리처럼 운동과 속도를 구별하지

---

1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809, 894쪽.

19) Patrick Crogan, "Theory of State: Deleuze, Guattari, and Virilio on the State, Technology and Speed," pp.23~24, 32. 원래 이 글은 다음의 잡지에 수록되어 있다. Angelaki, vol. 4, no. 2, Special Issue: Machinic Modulations, Sept., London: Routledge, 1999, pp.137~148. 국내에서 이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나는 이 책을 편집한 아미티지 교수에게 부탁해 MS워드 파일로 받았다. 내가 인용하는 쪽수는 이 파일상의 쪽수이다.

않는다. 들뢰즈·가타리의 설명에 따르면 운동은 '외연적'(연장적)이고, 속도는 '내포적'(강밀도적)이기 때문에 구별된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운동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는 폐쇄된 이동(신체의 상대적 성격)을 뜻하는 반면에 속도는 어떤 지점에서라도 갑자기 솟아오를 수 있는 우발성(신체의 절대적 성격)을 뜻한다.[20] 따라서 운동이 '도로'나 '둔중함'Gravitas(중력)과 관계있다면, 속도는 '길'이나 '신속함'Celeritas(무-중력)과 관계있다고도 볼 수 있다. 좌우간, 들뢰즈·가타리에게 이런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가 기존의 궤적을 '재생산하기'의 절차라면, 후자는 '따라가기'의 절차이기 때문이다.[21] 다시 말해서, 따라가기는 재생산하기에서 찾아보기 힘든(혹은 거의 불가능한) '일탈 가능성'이나 '새로운 궤적의 생산'을 함축하는 것이다.

나는 들뢰즈·가타리가 운동과 구별해 놓은 속도가 저항(혹은 혁명적 경향의 확보) 가능성과 관련 있다고 이해한다. "탈주선을 그리는 환원 불가능한 역동성"인 '-되기'를 "가속 운동, 운동의 절대 속도"로 규정한 것[22]이나, "단지 유목민만이 절대적 운동, 즉 속도를 갖고 있으며 소용돌이 운동 내지 회전 운동은 본질적으로 전쟁기계에 속하는 것"[23]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특히 그런 심증을 갖게 만든다.[24] 이렇게 보자면 "아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세 부류의 속

---

20)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732쪽.
21)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712~716쪽.
22)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451, 555쪽.
23)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732쪽.
24) 어떤 점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이런 구별은 운동의 자유(이동의 자유)를 혁명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맑스주의의 전통과도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들뢰즈·가타리의 이론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네그리의 다음과 같은 언급과

도를 왜 동질화했느냐?"라는 들뢰즈가타리의 점잖은 반론 밑에는 "왜 혁명의 가능성을 낳는 속도를 탐구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펄펄 끓고 있는 셈이다.[25]

그러나 유동성, 이동, 운동, 속도, 동원 자체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비릴리오의 사고방식은 "[적의] 흉내를 내다가는 쉽게 복병을 만난다"는 그람시의 사고방식과 더욱 더 닮은 듯하다.[26] 들뢰즈가타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 절대적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그렇게 되는 데에 필요한 스톡을 충분히 비축해 놓은 국가(좀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기계를 집어삼킨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 비릴리오의 생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적 범주를 아무런 구분 없이 속도의 질서에 종속된 무명의 병사로"(216: 원문 강조) 만들어 버린 것은 군산복합 민주주의(국가권력)이며, 따라서 절대치에 도달한 속도는 권력 고유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적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성을 지니지 않는 한, 이쪽이 원하는

비교해 보라. "대중의 운동은 새로운 공간들을 나타내며, 대중의 여행은 새로운 거주지들을 세운다. 자율운동은 대중에게 적합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종 옮김, 『제국』, 이학사, 2001, 502쪽. 특히, 제4부 3장의 「끝없는 길(전지구적 시민권)」이라는 단락 전체를 참조하라. 그리고 기동전과 진지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속도' '가속된 시간' '결정적 진군'을 이야기하는 그람시의 논의도 참조해 보라.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 『그람시의 옥중수고 1』, 거름, 1999, 277쪽.

25) 흥미롭게도 크로건의 지적에 따르면, 위 세 부류의 속도가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정작 비릴리오라기보다는 들뢰즈·가타리 자신들이라고 한다(Crogan, "Theory of State," pp.28~30). 예컨대 다음의 언급을 참조해 보라. "총력전이나 인민 전쟁, 또는 게릴라전이 서로에게서 어떻게 전쟁 방법[각자의 속도]을 차용하는가를 보라"(들뢰즈·가타리, 『천개의 고원』, 744쪽).

26)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1』, 273쪽.

전쟁 형태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27] 노릇인 셈이다. 비릴리오에게 절대적 속도가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극의 관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절대적 속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28]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절대적 속도와 비릴리오가 말하는 절대적 속도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비릴리오가 말하는 절대적 속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도표 1> 참조). 그것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가속화)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시속(㎞/h)이 아니라 마하(1,200㎞/h)로, 더 나아가서 광속(30만㎞/s)으로 측정되는 전쟁 무기의 속도이자, 정치적 의사결정의 시간을 "숙명의 단 1초로"[29] 줄어들 게 만들어 버린 속도(따라서 성찰 능력과 결정 능력을 박탈해 버릴 위험이 있는 속도)이다.

한편,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절대적 속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속도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에게 속도란 빠르기와 상관없는 그 무엇,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밀도'의 등가물이다. 그렇다면 강밀도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임계점'(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응축된 힘이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그것은 내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절대적 속도란 이 응축된 힘이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

27)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1』, 275쪽.
28) Armitage (ed.), Virilio Live, p.154.
29) 비릴리오, 『속도와 정치』, 242쪽.

중력에서 벗어나는 자유 행동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궤적에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솟구쳐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30]

중력에서 벗어나는 자유 행동, 그것은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에는 이르다. 들뢰즈·가타리에게 중력이란 지표 위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하지만, 어떤 고정된 한 곳에 붙들려 있는 '고착 상태'의 은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들뢰즈·가타리에게 절대적 속도란 절대적인(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의. 들뢰즈·가타리의 중력이 고착 상태의 은유이듯이, 이들의 이동은 공간적 위치의 변화인 동시에 어떤 상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은유이기도 하다. 이 점은 들뢰즈·가타리가 자신들의 속도를 선사하는 '유목민'Nomade을 살펴보면 더욱 더 분명해진다.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유목민을 생각하고 있다. …… 유목민은 이동하지 않는다."[31] 그들의 또 다른 주장. "물론 유목민도 움직이지만 그는 실제로는 앉아 있는 것이다. …… 유목민은 기다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있다."[32]

들뢰즈·가타리가 옳다.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유목민이 될 수 없다. 유목민은 '기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일까? 또 다른 삶의 영토, 또 다른 삶, 또 다른 사유와 가치, 아니 오히려 저항의 창출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

30)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763쪽.
31)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920쪽.
32)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920쪽.

그렇지만 저항에는 미리 전제된 의사일정이 없고, 다수결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저항 예고지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창출할 기회가 희미하게나마 깨어나는 순간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목민은 태곳적 이래로 지속되어온 메시아적 기다림을 하는 되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메시아적 기다림, 그것은 감시, 무장해제되지 않은 희망을 지키는 고집스런 불침번이다."[33] 그러나 유목민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메시아는 세속적 메시아, 즉 "지금-여기 위기의 순간에 정치적 혁명을 일궈내는 우리 자신"[34]이다. 또 한번 들뢰즈·가타리가 옳았다. "유목민은 절대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묘하게도 무신론적이다."[35]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목민에게 절대적인 이동 가능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유목민은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려온 위기의 순간, 저항의 순간이 포착될 때, 언제 어디서라도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유목민'이다. "제자리에서의 여행"[36]이라는 기이한 역설은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들은 '고집스런 불침번'이므로, 맑스는 일찍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의식'을 지녀야 하는 근대 최초의 유목민,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들뢰즈·가타리의 절대적 속도는 사실상 자기 내면의 강

---

33) 다니엘 벤사이드, 김은주 옮김, 『저항: 일반 두더지학에 대한 시론』, 도서출판 이후, 2003, 82쪽.
34) 벤사이드, 『저항』, 82쪽.
35)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735쪽.
36) 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921쪽.

밀도를 높이기 위한 속도이다. 따라서 그들의 절대적 속도는 내면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37]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이동에 가깝다. 그렇지만 물리적 개념의 속도를 논의하고 있는 비릴리오가 주목하고 있는 유목민은 타의에 의해서 이동하는 자, 추방된 자, 망명길에 오른 자, 이주민(이민자)이다. 즉, 어원 그대로 존재하는 자인 것이다(유목민은 '유랑' '방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마스'Nomas/νομας의 파생어이다). 따라서 그는 들뢰즈·가타리와는 달리 이렇게 말한다. "유목민이란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는 자, 임시직을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표류하는 존재이다."[38]

---

37) 그렇기 때문에 들뢰즈·가타리의 유목민(혹은 유목주의)은 일찍이 보들레르가 초대한 바 있는 여행의 '정치적' 판본이 될 가능성, 즉 자족적인 '정치적' 여행이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보라, 방랑기 있는/ 저 배들이……땅끝에서 모여드는 것은/ 네 욕망 일일이 채워주기 위해서지"[샤를 보들레르, 박은수 옮김, 『보들레르 시선집』, 민음사, 1995, 46쪽]). 보들레르의 '위대한' 후예들, 즉 비트 세대와 티모시 리어리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아나키스트 하킴 베이가 이미 들뢰즈·가타리의 유목주의를 '정신적 유목주의'(Psychic Nomadism)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참조. Hakim Bey, T.A.Z: The Temporary Autonomous Zone, Ontological Anarchy, Poetic Terrorism, New York: Autonomedia, 1991. 특히, 제3장 「일시적 자율지대」를 볼 것. 페미니스트 브라이도티도 이와 비슷한 노선을 취한다. "유목적 상태란 문자 그대로 이동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일련의 관습이 전복되는 상태이다." Rosi Braidotti,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5.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들뢰즈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모든 강밀도는 부동의 강밀도입니다. 강밀도는 꼭 외부 공간일 필요는 없는 특정 공간이나 체계에 스스로를 흩뿌립니다." Charles J. Stivale, "V as in Voyages: Gilles Deleuze with Claire Parnet," Nomadic Trajectories, Warwickshire: Warwick Journal of Philosophy, 1998, p.5.

38) Virilio and Petit, Politics of the Very Worst, p.72.

그러므로 비릴리오는 (들뢰즈가타리의) 유목민이 구현한/할 절대적 속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유목민을 양산한 과학기술의 절대적 속도에 맞서서 저항의 창출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그 역시 고집스런 불침번이기는 마찬가지이나, 그가 깨어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세속화된 메시아와 조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세속화된 적-그리스도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과학기술 앞에서 잠들기보다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 나는 과학기술 앞에서 절대 잠이 들어본 적이 없다."[39]

비릴리오는 『인민 방어와 생태 투쟁』에서 과학기술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과정(그리고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던 권력의 전쟁 형태)을 좇으며 각 단계에 부응했던 저항의 형태를 검토한 바 있다. 전쟁 형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만약 보방의 시대에는 이 세상의 거주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전쟁은 거주할 수 없는 모든 곳을 점령하는 것이 됐다."[40] 다시 말해서, 지리적 영토를 무대로 해서 벌어졌던 전쟁은 이제 점점 더 지리적 영토가 아닌 데에서까지 벌어지게 됐다. 절대적 속도에 다다른 무기 체계의 등장이 지리적 공간을 소멸시켰다는 비릴리오의 주장은 바로 이런 뜻이다. 지리적 공간의 소멸이란 지리적 공간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 가치가 점점 더 축소됐다는 뜻인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보자면, 저항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공간 자체도

---

39) Armitage (ed.), Virilio Live, p.157.
40)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58.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다.[41]

따라서 저항 세력들이 그 상황에 부응하는 저항 형태를 창안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10세기 당시 (훗날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만개할) 총력전에 필적할 만한 화력과 기동력을 지녔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 인민들은 '영토 없는 저항'을 창안했다.[42] 대포라는 프랑스군의 가공할 만한 화력이 그들이 거주하던 곳을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릴리오의 말을 빌리자면, 스페인 인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한 지점에서 전개되는 시민 방어'의 시대는 종결됐다. 바야흐로 게릴라전이라는 '시간의 저항'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수백 년이 지난 뒤, 미국이 베트남 인민들을 상대로 전개한 생태 전쟁(즉, 적들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연까지 파괴하는 초토화 전략)은 또 다른 저항 형태를 낳았다. 이제 (파괴된) 한 지점에서 (파괴되지) 않은 지점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며 저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인민들의 생존은 '~아래에 존재하는 것'[43]을 지속과 동화시키는 데 달려 있었

---

41) 모든 사회운동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유동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르페브르의 논의를 참조하라. "'삶을 변화시켜라!' '사회를 변화시켜라!' 이런 교훈들은 그에 적절한 공간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Henri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trans. Donald Nicholson-Smith, London: Blackwell, 1991, p.59. 특히 제2장 「사회적 공간」을 참조하라.

42)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50.

43) 비릴리오는 여기에서 라틴어 '섭스타레'(substare)라는 표현을 쓰는 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표현은 '~아래에 존재(하는 것)'(to stand[be] under)이다. 이 단어에서 '실체'(substance)라는 단어가 파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실체란 어떤 현상이나 물체의 배후(아래)에서 변화 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다."[44]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인민들이 창안한 것이 '신체 없는 저항'이다.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갔다. 즉, 자신들의 신체를 적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사라짐[소멸]의 저항'이다.

그렇다면, 파고 들어갈 땅마저 권력에게 빼앗긴다면 어떤 형태의 저항이 가능한 것일까? 그 답은 자신들의 땅에서 내쫓긴 1970년대의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보여줬다. "전쟁은 자신의 영토를 타인의 영토에까지 확장할 때 존속된다."[45] 따라서 권력이 아직까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영토에서 저항을 시작하면 된다. 그곳은 바로 미디어이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투쟁은 TV를 통해서 자신들의 투쟁 소식을 보고 듣는 전 세계의 4백~5백만 미디어 시청자들을 염두에 둔 투쟁이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영토를 잃어버린 팔레스타인 인민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억을 영토 삼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영토는 빼앗겼지만 정체성까지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따라서 비릴리오는 이들의 저항을 환영적Phantasmal 정체성의 저항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인민들의 방어는 더 이상 국가적 영토의 방어와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됐다."[46]

그렇다면 한번 더, 권력이 이런 모든 저항 형태를 능가하게 될 힘을 지니게 된다면, 즉 절대적 속도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저항 형태가 가능한 것일까? 권력의 절대적 속도가 극의 관성을

---

44)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52.
45)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57.
46)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58.

가져온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 움직임 없이 집에 틀어박힌 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 누에고치 같은 사회,"[47] 그래서 권력의 절대적 속도가 사회 전체를 맘대로 탈영토화할 수 있게 된 사회에서라면 말이다. 비릴리오와 들뢰즈가타리가 서로 수렴하는 지점, 그들이 공동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들뢰즈가타리와 내가 탈영토화라는 주제에 분명히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도 놀랄 것 없는 일이다."[48]

비릴리오가 보기에 현대 사회는 권력의 절대적 속도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더 이상 속도로는 권력을 제압할 수 없다. "오늘날 [권력의] 과학기술은 기존의 인민 방어 형태를 모조리 능가해 버렸다. …… 오늘날의 인민들에게 속도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됐다."[49] 권력의 속도에 다다르고자 핵무기를 탈취하려 했던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들, 스스로 파괴 기계가 되려고 했다는 붉은여단의 지도자 레나토 쿠르치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 인간[군사인]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인민 방어가 아니다"[50]라는 역설.

비릴리오가 『소멸의 미학』(1980)을 시작으로 『해방의 속도』(1995)를 거쳐 최근의 『미지수』(2003)에 이르기까지 '피크노렙시,' Picnolepsie 즉 '중단' '방해'의 개념에 천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

47) Paul Virilio, "Marginal Groups," Daidalos, no.50, December, Berlin: Daidalos, 1993, p.75.
48) Armitage (ed.), Virilio Live, p.40.
49) Virilio, Popular Defense and Ecological Struggles, pp.71, 89.
50)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111.

중단[방해]이란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지속에 맞설 때까지 확산되는 총파업은 농민 혁명이 창안한 바리케이드와 마찬가지로 결코 얕잡아볼 수 없는 발명품이었다. 왜냐하면 총파업은 일체의 지속에 맞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총파업은 (바리케이드처럼) 공간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지속을 방해한다. 총파업은 시간 속에 쌓아 놓은 바리케이드이다.[51]

권력에게 있어서 중단이란 일종의 시스템 장애, 균열, 그도 아니면 '사고'Accident이다. 사실상, 절대적 속도에 도달함으로써 권력은 사고를 자신의 속성으로 삼게 됐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속도의 가속화는 사고, 그것도 '총체적 사고'Accident totale를 낳는다. "범선이나 증기선을 발명한다는 것은 곧 난파를 발명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차의 발명은 탈선의 발명이며, 자가용의 발명은 고속도로상에서 벌어지는 연쇄 충돌의 발명이고,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비행기나 기구)를 날게 만든다는 것은 추락의 발명이다."[52] 과학기술이 가져온 속도의 가속화를 면밀히 추적한 비릴리오의 잠정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항은 이 속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일까? 의식적으로 '시간 속에'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래서 권력(자본)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막음으로써?[53]

---

51)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p.40~41.

52) Paul Virilio, Unknown Quantity, trans. Chris Turner et. als., New York: Thames&Hudson, 2003, p.24.

53)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시간'을 '표이적'(漂移的, Erratic Time) 시간

"물론,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인민 저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54] 그렇지만,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정치화해야만 한다. 생체적 속도(살아 있는 존재의 속도, 성찰[사유]의 속도)이든, 기계적 속도이든. 우리는 이 두 속도를 모두 정치화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모두이기 때문이다."[55]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릴리오의 드로몰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드로몰로지는 속도라는 개념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또 다른 학문적 담론이기 이전에 속도를 통해, 속도에 맞서 저항을 사유하겠다는 정치학인 셈이다.

절대적 속도를 확보한 권력의 탈영토화에 맞서 들뢰즈가타리와 비릴리오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그들은 공통의 지반 위에서 출발했기에, 그들의 다름은 사실상 다름이 아닐 수도 있다. "들뢰즈가타리와 내가 상호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상호 수렴됐다"[56]라고 말했을 때, 비릴리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정작 이 뜻이 아니었을까? 비유컨대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곤'Agon을, 그러니까 적대 없이 경쟁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창조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

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르비치의 논의와 비릴리오의 논의를 비교해 보라. "표이적 시간이란 [사회의] 리듬이 출현과 소멸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시간이다. 즉, 지속 안에서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이 일련의 틈이 생겨나는 시간이다." Georges Gurvitch, The Spectrum of Social Time, trans. Myrtle Korenbaum,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64, pp.31~32. 비릴리오가 말하는 중단은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틈을 벌려놓는 전술인가?

54)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109.

55) Virilio and Lotringer, Pure War, p.109.

56) Armitage (ed.), Virilio Live, p.40.

"권력에서 상상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다.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조직력이다. 정치란 욕망이 아니라 행동인 것이다"[57]라는 말로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비릴리오도 말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고, 일정 부분 그에게 동의했다. 그렇지만 리슐리외 강당에서 상상력을 언급하며 역사로 들어간 비릴리오에게는 여전히 상상력이 중요했다. "갈릴레오의 저서는 정치적이다. 코페르니쿠스나 아인슈타인의 저서도 정치적이다. ……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곧 정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58]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 거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할 테니. (끝)

---

57) 크리스티앙 비에·장-폴 브뤼옐 외, 은위영 옮김, 『앙드레 말로: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시공사, 1996, 122쪽.

58) Armitage (ed.), Virilio Live, p.95.

폴 비릴리오의 저작들

1975

Bunker archéologie, Paris: Centre Georges Pompidou, Centre de Création Industrielle. [(1991) 2nd. Edition, Paris: Demi-Cercle. 「1945년/1990년」(1945/1990)이라는 새로운 후기 첨부]

—— (1994) *Bunker Archaeology*, trans. George Collins, Princet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76

L'Insécurité du territoire, Paris: Stock. [(1993) 2nd. Edition, Paris: Galilée. 「극한의 한계에서 극한의 근사치로」(Postface: De l'extrême limite 'a l'extrême proximité)라는 새로운 후기 첨부]

1977

Vitesse et politique. Essai de dromologie, Paris: Galilée.

—— (1986) *Speed and Politics*, trans. Mark Polizzotti, New York: Semiotext(e). [국역: 이재원 옮김, 『속도와 정치』, 그린비, 2004.]

1978

Défense populaire et luttes écologiques, Paris: Galilée.

—— (1990) *Popular Defence and Ecological Struggles*, trans. Mark Polizzotti, New York: Semiotext(e).

La Dromoscopie ou la lumière de la vitesse, Paris: Minuit.

1980

Esthétique de la disparition, Paris: Balland. [(1989) 2nd. Edition, Paris: Galilée.새로운 서문 첨부]

—— (1991) *Aesthetics of Disappearance*, trans. Philip Beitchman, New York: Semiotext(e). [국역: 김경온 옮김, 『소멸의

미학』, 연세대출판부, 2004.]

1984

L'Espace critique, Paris: Christian Bourgois.

—— (1991) *The Lost Dimension*, trans. Daniel Moshenberg, New York: Semiotext(e).

Guerre et cinéma I. Logistique de la perception, Paris: l'Etoile. [(1991) 2nd. Edition, Paris: Galilée. 새로운 서문 첨부]

—— (1989) *War and Cinema: The Logistics of Perception*, trans. Patrick Camillier, London: Verso. [국역: 권혜원 옮김, 『전쟁과 영화』, 한나래, 2004.]

L'Horizon negatif. essai de dromoscopie, Paris: Galilée.

—— (1986) *Negative Horizon*, trans. Mark Polizzotti, New York: Semiotext(e).

1988

La Machine de vision, Paris: Galilée.

—— (1994) *The Vision Machine*, trans. Julie Ros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L'Inertie polaire, Paris: Christian Bourgois.

—— (1999) *Polar Inertia*, trans. Patrick Camillier, London: Sage.

1991

L'Écran du désert. chronique de guerre, Paris: Galilée.

—— (2002) *Desert Screen: War at the Speed of Light*, trans. Michael Degener, New York: Continuum.

1993

L'Art du moteur, Paris: Galilée.

—— (1995) *The Art of the Motor*, trans. Julie Ro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국역: 배영달 옮김, 『동력의 기술』, 경성대출판부, 2007.]

1995

La vitesse de libération, Paris: Galilée.

—— (1997) *Open Sky*, trans. Julie Rose, London: Verso. [국역: 배영달 옮김, 『탈출속도』, 경성대출판부, 2006.]

1996

Un paysage d'événements, Paris: Galilée.

—— (2000) *A Landscape of Events*, trans. Julie Rose, Mass.: MIT Press.

1998

La Bombe informatique, Paris: Galilée.

—— (2000) *The Information Bomb*, trans. Chris Turner, London: Verso. [국역: 배영달 옮김, 『정보과학의 폭탄』, 울력, 2002.]

1999

Stratégie de la déception, Paris: Galilée.

—— (2001) *Strategy of Deception*, trans. Chris Turner, London: Verso.

Ville panique, Paris: Galilée.

2000

La Procédure silence, Paris: Galilée.

—— (2003) *Art and Fear*, trans. Julie Rose, New York: Continuum.

2002

Ce qui arrive, Paris: Galilée.

—— (2002) *Ground Zero*, trans. Chris Turner, London: Verso.

2003

Unknown Quantity, Paris/New York: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Thames&Hudson. [An Pamphlet of "Ce qui arrive," Exhibition conceived by Paul Virilio, November 29th 2002 till March 30th 2003,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Paris, France]

Ville panique. Ailleurs commence ici par, Paris: Galilée.

—— (2005) *City of Panic*, trans. Julie Rose, Oxford: Berg.

2005

L'accident originel, Paris: Galilée.

—— (2007) *The Original Accident*, trans. Julie Rose, Cambridge: Polity.

L'Art à perte de vue, Paris: Galilée.

—— (2007) *Art as Far as the Eye Can See*, trans. Julie Rose, Oxford: Berg. [국역: 이정하 옮김, 『시각 저 끝 너머의 예술』, 열화당, 2008.]

2007

L'Université du Désastre, Paris: Galilée.